

日本 所在 16世紀의 朝鮮 內賜本 研究

A Study on Naesabon of the Joseon Dynasty of 16th Century in Japan

이 재 준(Jae-Jun Lee)*

송 일 기(II-Gie Song)**

< 목 차 >

I. 緒論	IV. 時期別 分析
II. 日本 所在 內賜本の 傳存 現況	V. 主題別 分析
III. 板種別 分析	VI. 結論

초 록

우리 역사상 조선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군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국토가 유린되고 살인, 방화, 약탈은 물론 수많은 양민과 기술자의 나포, 문화재 반출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가운데 서적의 약탈 및 반출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약탈된 서적 중에는 내사본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조선전기 완질본이 다량으로 전존되고 있다. 일본 지역 내사본의 실제적 내용이 확인된다면 국내에 잔본 등으로 소장되어 있는 同本에 대한 간행시기와 배포규모 등의 관련 제반사항을 훨씬 더 자세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전존 내사본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서지학적, 역사학적 측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현재 일본 지역에 전존되고 있는 우리나라 내사본 가운데 우선적으로 16세기에 내사된 서적을 대상으로 소장처, 판종, 시기, 주제 등의 종합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키워드: 內賜本, 內賜記, 內賜印, 頒賜, 日本

ABSTRACT

The Joseon Dynasty suffered a great loss from the Japan invasion of Korea in 1592. At that time so many precious books were plundered by Japanese Army. And that plundered books, now in Japan, include a lot of complete titles of the books were given by the Kings – the Naesabon (內賜本) – of the early Joseon Dynasty period. If we could find out the quantities and the contents of them, it could be helpful for studying the same books remained incompletely now in Korea. In this respect, understanding current situation of the Naesabon(內賜本) is an important subject of the Korean bibliographic and historical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out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aesabon(內賜本) now in Japan, especially published in 16th century.

Keywords: Naesabon, Naesagi, Naesain, Bansa, Japan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lj7523@aks.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igsong@ca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13년 11월 15일 • 최초심사: 2013년 11월 30일 • 게재확정: 2013년 12월 15일

I. 緒論

현재 일본 지역에 전존되고 있는 조선시대 내사본의 양적 규모는 약 400여 건 안팎으로 추산된다. 그 중 내사기가 잘 보존되어 受賜者를 파악할 수 있는 내사본이 약 280여 건, 내사기가 일실되어 受賜者를 알 수 없는 내사본이 약 120여 건 정도이다. 400여 건 가운데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인 15~16세기 내사본은 90여 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25% 수준에 달한다. 대부분은 임진왜란 당시 약탈된 것들이고, 그 이후의 내사본은 일제강점기에 유출된 경우가 많다. 일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매매 또는 증여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전존 내사본의 가장 큰 특징은 임진왜란 이전에 반사된 조선전기 내사본의 비율이 높고 대부분 완질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에 전존하고 있는 조선전기 내사본의 양적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며, 국내 전존본의 대부분이 낙질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진다.

이 연구는 그동안 간행된 일본 소재 한국본 목록집 및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물 등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16세기 내사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 가운데 국내에 동일본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는 직접 실사하여 참고하였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심우준(1988),¹⁾ 천혜봉(2003)²⁾ 등이 있다. 심우준은 『日本訪書志(1988)』, 『內賜本版式·古文書套式研究(1990)』 등에서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본 전적을 지역별·기관별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내사본의 서지사항도 충실히 수록하였다. 천혜봉의 『日本蓬左文庫韓國典籍(2003)』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내사본이 40여종인데 반해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의 목록집³⁾을 반영해 90여 종으로 보강하여 기술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본 전존 내사본은 약 400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한 번에 모두 다루기에는 분량과 효율성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많은 양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만큼 개별서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서술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내사기와 내사인이 확인되는 16세기의 판본을 선별하여 소장처, 판종, 시기, 주제 등으로 분석하고 일본에 전존하는 이 시기의 조선 내사본의 면모와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沈暉俊, 日本訪書志(城南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沈暉俊, 內賜本版式·古文書套式 研究(서울 : 一志社, 1990).

2) 千惠鳳,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서울 : 지식산업사, 2003).

3) 國立文化財研究所,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録(대전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II. 日本 所在 內賜本の 傳存 現況

현재 일본의 각급 기관에 수장되어 있는 16세기 조선의 내사본 대부분은 임란 당시의 약탈·반출과정을 거쳐 전존하는 것들로써 여러 기관의 내사본 소장 경위는 반출부터 전래 과정이 큰 틀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일본 전존 16세기 조선 내사본의 소장처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소장처별 현황

所藏處	書名	數量 (件)	比率 (%)
京都大學	東國輿地勝覽	1	1.1
廣島市立圖書館	儀禮經傳通解/唐太宗李衛公問對直解/司馬法集解/三略直解/十一家註孫子Ⅱ/吳子直解Ⅱ/尉繚子直解/六韜直解	8	8.8
國立國會圖書館	御製文集/中庸集畧/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	3	3.3
宮城縣立圖書館	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尉繚子直解	2	2.2
國立公文書館	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異端辨正/文獻通考/醫說/大明一統志/詳說古文真寶大全前集	6	6.6
大谷大學	大同宣府軍門練武圖法/朱子增損呂氏鄉約/國朝儒先錄	3	3.3
島原公民館	歷代通鑑纂要	1	1.1
東京大學	海東諸國記/兵政/二倫行實圖	3	3.3
東北大學	南史	1	1.1
東洋文庫	異端辨正/藝文類聚/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3	3.3
洞春寺	新編古今事文類聚	1	1.1
蓬左文庫	治平要覽/少保于公奏議/歷代君臣圖像/迂齋先生標註崇古文訣/朱子大全Ⅰ/御製文集/桂洲奏議/讀杜詩愚得/異端辨正/國朝五禮儀/大明會典/天原發微/選詩/文章辨體/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通典/四書重訂章圖輯釋通義大全/內訓/晦齋先生集/箋註靖節先生集/書傳大全	21	23.1
宮內廳書陵部	十七史詳節/文章辨體/唐詩始音輯註/朱子語類Ⅱ/唐太宗李衛公問對直解/司馬法集解/三略直解/十一家註孫子Ⅱ/吳子直解Ⅱ/尉繚子直解/六韜直解/新刊補註銅人臉穴鍼灸圖經/詩傳大全	13	14.3
松浦史料博物館	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春秋胡氏傳集解	2	2.2
陽明文庫	國朝五禮儀	1	1.1
お茶の水女子大學	周易傳義大全/異端辨正/文章一貫	3	3.3
龍谷大學	唐百家詩	1	1.1
滋賀大學	前漢書	1	1.1
靜嘉堂文庫	朱子語類Ⅰ	1	1.1
尊經閣文庫	山谷內集詩註/韻會玉篇/懷麓堂詩藁/兵將說/十一家註孫子Ⅰ/歷代兵要/吳子直解Ⅰ/唐太宗李衛公問對直解/司馬法集解/尉繚子直解/六韜直解/論語集註/孝經大義	13	14.3
天理大學	心經附註/朱子大全Ⅱ/論語集註	3	3.3
	合計	91	100

내사본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봉좌문고의 경우名古屋(나고야)의 옛 이름을 따 붙인 것으로 20세기 초에 현재의 명칭이 붙여졌다.⁴⁾ 임진왜란 후 실권을 장악한 德川家康(1543-1616)의

4) 千惠鳳,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서울 : 지식산업사, 2003), p.23.

‘駿河文庫’가 기원이 된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의해 많은 학자 및 장인 등이 나포되었으며 문화재는 주요 약탈 대상이었다. 그 중 고전적을 으뜸으로 여겨 조직적, 계획적 약탈이 이루어졌다. 초기 약탈된 서적은 豊臣秀吉(1536-1598)이 소유하게 되었으나 그가 죽자 패권쟁탈에서 승리한 徳川家康이 실권을 잡았고 豊臣秀吉의 소유였던 약탈된 서적도 徳川家康이 가지게 되었다.⁵⁾

또한 이 외의 약탈된 서적 중 상당수는 곡절을 겪으며 분산되고 흩어져 여러 세력가에게 흘러들어 개인문고로 편입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며 일본 내에서 증여, 매매 등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소장처를 이루게 되었다. 16세기 내사본의 대부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일본 지역 내 정부기관, 대학교, 문고 등 20여 곳 이상의 기관에 분산·소장되어 있다.

소장처별 수량을 살펴보면 蓬左文庫 21건(23.1%), 書陵部와 尊經閣文庫에 각각 13건(14.3%), 廣島市立圖書館 淺野文庫 8건(8.8%),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6건(6.6%), 國立國會圖書館, 大谷大學, 東京大學, 東洋文庫, お茶の水女子大學 成篁堂文庫, 天理大學에 각 3건(3.3%), 宮城縣立圖書館, 松浦史料博物館에 각 2건(2.2%), 京都大學, 島原公民館, 東北大學, 洞春寺, 陽明文庫, 龍谷大學, 滋賀大學, 靜嘉堂文庫에 각 1건(1.1%)씩 소장되어 있다.

한편 기관별로 여러 종의 내사본에 대한 동일 受賜者가 나타나기도 하며, 또는 각각 다른 기관에 나누어 전존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일본으로 건너간 후 개인 또는 가문별로 전래된 영향을 받은 것이고, 후자는 약탈 당시에 곧바로 분산되었거나 그 이후 전래과정에서 나누어진 경우에 해당된다. 91건의 내사본 중 3건 이상의 受賜者는 6인이고, 2건 이상의 受賜者가 7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盧植 7건, 金瓚 6건, 鄭大年 4건, 洪彥弼 3건, 任輔臣 3건, 李陽元 3건 등으로 나타나며 權應挺, 金半千, 南應龍, 安瑋, 金適, 朴忠元, 宋寅은 각 2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는 1인당 1건씩 51명의 受賜者가 확인된다.⁶⁾

주요 受賜者로 盧植(1536-1587)은 字 士稚, 號 別宥·好閉軒·望浦, 本貫은 交河다. 1569년(宣祖2)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刑曹佐郎을 시작으로 正言, 同副承旨, 平安道觀察使, 戶曹判書, 禮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성품이 강직하고 정사에 밝아 宣祖의 신임을 받았으며 李元翼, 柳成龍과의 교분이 두터웠다. 盧植의 내사본은 『唐太宗李衛公問對直解』, 『司馬法集解』, 『三略直解』, 『十一家註孫子』, 『吳子直解』, 『尉繚子直解』, 『六韜直解』 등 『武經七書』의 단행본 7건이다. 1577년(宣祖10) 10월 司憲府 掌書으로 재임할 당시 일괄 하사받은 책들로 廣島市立圖書館 淺野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金瓚(1543-1599)은 字 叔珍, 號 訥菴, 本貫은 安東이다. 1568년(明宗23)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執義, 司諫, 京畿道觀察使, 吏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가로 명성이 높았고, 경제와 외교에 뛰어났다. 金瓚의 내사본은 『唐太宗李衛公問對直解』, 『司馬法集解』, 『三略直解』,

5) 千惠鳳, 앞의 책, p.28.

6) 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고.

『吳子直解』, 『尉繚子直解』, 『六韜直解』 등 6건으로 『武經七書』 가운데 『十一家註孫子』를 제외한 6종이다. 1577년(宣祖10) 10월 司憲府 持平으로 재임할 당시 일괄 하사받은 책들로 書陵部에 소장되어 있다.

鄭大年(1503-1578)은 字 景老, 號 思菴, 本貫은 東萊다. 1532년(中宗27)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持平, 右承旨, 漢城府判尹, 戶曹判書, 吏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성품이 강직한 청백리로 당대의 명망가였다. 鄭大년의 내사본은 1549년(明宗4) 10월 都承旨 재임시 하사받은 『讀杜詩愚得』, 1569년(宣祖2) 3월 刑曹判書 재임시 하사받은 『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 1575년(宣祖8) 5월 行知中樞府事 재임시 하사받은 『朱子語類』, 1578년(宣祖11) 7월 行吏曹判書 재임시 하사받은 『晦齋先生集』 등 4종이다. 이 중 『讀杜詩愚得』과 『晦齋先生集』은 蓬佐文庫, 『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은 國立國會圖書館, 『朱子語類』는 書陵部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洪彥弼(1476-1549)은 字 子美, 號 默齋, 本貫은 南陽이다. 1504년(燕山君 10) 문과에 급제했으나,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귀양 갔다가 중종반정 이후 사면되었다. 1507년(中宗2)에 다시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持平, 都承旨, 判書, 贊成, 右議政, 左議政, 領議政 등을 역임하였다. 검소하고 청빈하였으나 각종 사화에 연루되는 등 곡절을 겪었다. 훗날 공신과 부원군에 봉해졌다. 洪彥弼의 내사본은 1512년(中宗7) 3월 弘文館 校理 재임시 하사받은 『海東諸國記』, 1542년(中宗37) 1월 左議政 재임시 하사받은 『新編古今事文類聚』, 1547년(明宗2) 3월 領中樞府事 재임시 하사받은 『懷麓堂詩藁』 등 3종이다. 이 중 『海東諸國記』는 東京大 史料編纂所, 『新編古今事文類聚』는 洞春寺, 『懷麓堂詩藁』는 尊經閣文庫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任輔臣(?-1558)은 字 弼仲, 號 圃樵, 本貫은 豊川이다. 1544年(中宗39) 별시문과 병과에 급제하였다. 博士, 校理, 刑曹參議 등을 역임하였다. 任輔臣의 내사본은 1546년(明宗1) 10월 弘文館 博士 재임시 하사받은 『御製文集』, 1549년(明宗4) 10월 前吏曹佐郎의 신분으로 하사받은 『桂洲奏議』, 1555년(明宗10) 5월 承文院 判校 재임시 하사받은 『文章辨體』 등 3종이다. 이 중 『御製文集』과 『桂洲奏議』는 蓬佐文庫, 『文章辨體』는 書陵部에 소장되어 있다.

李陽元(1526-1592)은 字 伯春, 號 鷺渚, 本貫은 全州다. 1555년(明宗10)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檢閱, 京畿道觀察使, 刑曹判書, 右議政, 領議政 등을 역임하였다. 宗系辨誣를 해결하여 光國功臣에 책록되고, 漢山府院君에 봉해졌다. 박학하고 정사에 중립적이었으며 시문에 능하였다. 李陽元의 내사본은 『武經七書』 중 『司馬法集解』, 『尉繚子直解』, 『六韜直解』 등 3종이다. 1577년(宣祖10) 10월 吏曹參判으로 재임할 당시 일괄 하사받은 책들로 尊經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이밖에 조선중기의 명신 盧守愼(1515-1590)⁷⁾이 1544년(中宗39) 6월 世子侍講院 右司書로 있을 때 하사받은 『朱子語類』는 靜嘉堂文庫에 소장되어 있고, 『眉巖日記』 등 많은 저술을 남겼

7) 字 寡悔, 號 蘇齋, 本貫은 光州다. 1543년(中宗38)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大司諫, 大司憲, 右議政, 左議政, 領議政 등을 역임하였다.

으며 호남 사림의 대표적 인물인 柳希春(1513-1577)⁸⁾이 1575년(宣祖8) 7월 工曹參判으로 있을 때 하사받은 『朱子大全』은 天理大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東醫寶鑑』 등 의서 편찬에 심혈을 기울인 당대의 명의 許浚(1539-1615)⁹⁾이 1578년(宣祖11) 9월 內醫院 僉正으로 있을 때 하사받은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은 書陵部에 소장되어 있다. 위 서적들은 문화적·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은 물론이고, 당대 名士들이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내사본의 실물이 지금까지 전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Ⅲ. 板種別 分析

조선 전기 내사본의 가장 큰 특징은 금속활자본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내사본은 곧 관판본임을 감안할 때 당시 국가 주도로 활발히 사용되었던 금속활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16세기 내사본의 판종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금속활자본, 목판본, 탁본의 3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목활자 인출 내사본은 광해군 시기의 훈련도감자본부터 시작되므로 16세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의 역대 왕과 신하들의 형상을 글과 그림으로 인쇄한 『歷代君臣圖像』 1종과 일부 목판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금속활자본이다. 71종 91건 가운데 금속활자본은 65종 85건으로 92%에 달하고 있다. 금속활자의 종류는 갑인자, 을해자, 갑진자, 계축자, 병자자, 경진자, 을해자체경서자 등 모두 7종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특수 목적의 鑄字를 제외하면 조선전기에 주조되었던 금속활자의 대부분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전존 16세기 조선 내사본의 판종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板種別 分析

서명 옆 ()의 숫자는 件數

區分	書名	數量 (種)	比率 (%)
甲寅字本 (1512-1570)	海東諸國記/周易傳義大全/歷代通鑑纂要/前漢書/山谷內集詩註/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2)/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南史/御製文集(2)/春秋胡氏傳集解/選詩/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儀禮經傳通解	13	18.3
乙亥字本 (1520-1577)	少保子公奏議/韻會玉篇/朱子大全 I/懷麓堂詩藁/兵政/讀杜詩愚得/異端辨正(4)/文章一貫/國朝五禮儀(2)/天原發微/唐詩始音輯註/兵將說/吳子直解 I /通典/大明一統志/內訓/朱子增損呂氏鄉約/朱子大全 II/國朝儒先錄/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唐太宗李衛公問對直解(3)/司馬法集解(3)/三略直解(2)/十一家註孫子 II /吳子直解 II (2)/尉繚子直解(4)/六韜直解(3)	27	38.0

8) 字 仁仲, 號 眉巖. 本貫은 文化다. 1538년(中宗3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正言, 校理, 大司成, 全羅道觀察使, 禮曹參判, 工曹參判, 吏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9) 字 淸源, 號 龜巖. 本貫은 陽川이다. 1574년(宣祖7) 의과에 급제하여 內醫·太醫·御醫를 지내며 『東醫寶鑑』을 편찬하였고, 기존의 여러 의서에 주석을 달거나 수정·보완하여 再編刊하는 등 의학 연구 및 의서의 편찬·보급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甲辰字本 (1501-1578)	大同宣府軍門練武圖法/治平要覽/十七史詳節/新編古今事文類聚/桂洲奏議/藝文類聚/文章辨體(2)/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文獻通考/醫說/唐百家詩/四書重訂章圖輯釋通義大全/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13	18.3
癸丑字本 (1502)	東國輿地勝覽	1	1.4
丙子字本 (1535-1575)	迂齋先生標註崇古文訣/朱子語類 I/大明會典/十一家註孫子 I/歷代兵要/朱子語類 II	6	8.5
庚辰字本 (1583-1587)	箋註靖節先生集/論語集註(2)/書傳大全/詩傳大全	4	5.6
乙亥字體經書字 本 (1590)	孝經大義	1	1.4
木板本 (1548-1579)	中庸集畧/詳說古文眞寶大全前集/心經附註/晦齋先生集/二倫行實圖	5	7.0
拓本 (1526)	歷代君臣圖像	1	1.4
合計		71	100

판종별 세부현황은 갑인자본 13종 15건(18%), 을해자본 27종 43건(38%), 갑진자본 13종 14건(18%), 계축자본 1종 1건(1%), 병자자본 6종 6건(9%), 경진자본 4종 5건(6%), 을해자체경서자본 1종 1건(1%), 목판본 5종 5건(7%), 탁본 1종 1건(1%)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을해자본이 전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갑인자본과 갑진자본도 10종 이상이 전존한다. 그 외의 활자본은 10종 미만이다. 을해자체경서자본은 국내에서도 여러 건이 전존되고 있으며, 희귀 판종인 경진자본 4종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IV. 時期別 分析

서적 반포의 기원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¹⁰⁾ 그러나 내사기와 내사인이 갖춰진 형태의 내사본 관련 기록은 조선초기부터 나타난다.¹¹⁾ 15세기 내사본은 국내의를 모두 합해도 10여종에 불과하다. 게다가 내사기가 탈락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宣賜之記』 또는 기타 표식을 통해 식별되고 있다.¹²⁾ 15세기의 내사본은 표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시의 서적 간행 및 반포 현황을 자세히

10) 『高麗史』卷6. 靖宗 11年 4月 乙酉. 秘書省進新刊禮記正義七十本毛詩正義四十本命藏一本於御書閣餘賜文臣.

11) 『杜氏通典跋』. 通典一部七十五册卽我十代祖文剛公受賜于太宗朝著第一卷之面書曰永樂五年四月日內賜…

12) 1429년(世宗11)의 庚子字本 『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奎章閣)』과 木板本 『周易傳義大全(國立中央圖書館)』에는 권수면에 「內賜」와 「經筵」의 인기가 찍혀 있다. 『世宗實錄』 11년(1429) 3월 26일의 기사에 따르면 하사하는 서적에 대해 「內賜」의 인장을 찍도록 집현전에서 요청하였고 왕이 윤허하였는데 실제 인기가 확인되는 만큼 이 무렵부터 제도로 시행된 듯하다. 『宣賜之記』의 내사인은 없지만 上記한 기타 표식의 예를 적용한다면 이 두 종이

파악하기가 어렵고 단지 반포 사례와 양태를 단면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외는 달리 16세기의 내사본은 사정이 나은 편으로, 다음은 일본에 전존하고 있는 16세기 내사본을 王代별로 분석한 것이다.

〈표 3〉 時期別 分析

서명 옆 ()의 숫자는 件數

區分	書名	數量 (種)	比率 (%)
燕山君 (1495-1506)	大同宣府軍門練武圖法/東國輿地勝覽	2	2.8
中宗 (1506-1544)	海東諸國記/治平要覽/少保于公奏議/周易傳義大全/歷代通鑑纂要/前漢書帝紀/山谷內集詩註/歷代君臣圖像/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2)/十七史詳節/迂齋先生標註崇古文訣/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韻會玉篇/新編古今事文類聚/朱子大全 I /朱子語類 I	16	22.5
明宗 (1545-1567)	南史/御製文集(2)/懷麓堂詩藁/兵政/中庸集略/桂洲奏議/讀杜詩愚得/異端辨正(4)/文章一貫/藝文類聚/國朝五禮儀(2)/大明會典/春秋胡氏傳集解/天原發微/選詩/文章辨體(2)/唐詩始音輯註/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十一家註孫子 I /歷代兵要/兵將說/吳子直解 I /文獻通考/醫說/通典/大明一統志/詳說古文眞寶大全前集	27	38.0
宣祖 (1567-1608)	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儀禮經傳通解/唐百家詩/四書重訂章圖輯釋通義大全/心經附註/內訓/朱子增損呂氏鄉約/朱子語類 II /朱子大全 II /國朝儒先錄/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唐太宗李衛公問對直解(3)/司馬法集解(3)/三略直解(2)/吳子直解 II (2)/尉繚子直解(4)/六韜直解(3)/十一家註孫子 II (2)/晦齋先生集/新刊補註銅人臉穴鍼灸圖經/二倫行實圖/箋註靖節先生集/論語集註(2)/書傳大全/詩傳大全/孝經大義	26	36.6
合計		71	100

일본 전존 조선의 내사본 중 最古本은 1437년(世宗19)의 갑인자본 『歷代將鑑博議』로 書陵部에 소장되어 있다. 내사기는 없고 권수면에 「宣賜之記」가 날인되어 있다. 「宣賜之記」의 크기가 5cm 正方形으로, 16세기에 나타나는 8cm 正方形의 내사인과는 크기가 다른 초기 내사인이다. 『歷代將鑑博議』는 일본뿐만 아니라 내사인이 확인되는 세계 最古의 내사본으로 파악되고 있다.¹³⁾ 이외에 1453년(端宗1)의 경오자본 「古今歷代十八史略」이 확인되고 있다. 足利學校遺蹟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내사기는 없고 「宣賜之記」만 날인되어 있다. 경오자본 중 유일한 내사본이다.¹⁴⁾ 또한 『經國大典(蓬佐文庫)』¹⁵⁾ 『陳法(尊經閣文庫)』¹⁶⁾ 등이 15세기의 내사본으로 보이

현전 최고의 내사본이 된다.

13) 沈喞俊, 內賜本版式·古文書套式 研究(서울 : 一志社, 1990), p.127.

14) 沈喞俊, 日本訪書志(城南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p.466.

15) 千惠鳳, 日本 蓬佐文庫 韓國典籍(서울 : 지식산업사, 2003), p.115.

16) 國立文化財研究所,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대전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p.63.

나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정도에서 언급을 마친다.

한편 16세기는 성리학에 대한 조선 학자들의 축적된 연구 성과가 나타남과 함께 중국서적과 이에 대한 주석서, 해설서 등 서적의 간행이 매우 활발해진 시기였다. 또한 국정 운영에 따른 政書, 史書, 兵書 등의 서적도 계속 간행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학자들의 시문이 크게 유행했던 시기로 다수의 서적이 조선에 수입되어 再刊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내사본의 種 다양성이 높고 전존하는 내사본도 다수 확인된다.

16세기 내사본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燕山君代는 『大同宣府軍門練武圖法(1501.3)』, 『東國輿地勝覽(1502.2)』 등 2종 2건으로 대상본 중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中宗代는 『海東諸國記(1512.3)』, 『治平要覽(1516.11)』, 『少保于公奏議(1520.8)』, 『周易傳義大全(1520.10)』, 『歷代通鑑纂要(1521.8)』, 『前漢書(1525.5)』, 『山谷內集詩註(1526.2)』, 『歷代君臣圖像(1526.5)』, 『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1533.9)』, 『十七史詳節(1535.6)』, 『迂齋先生標註崇古文訣(1535.9)』, 『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1537.2)』, 『韻會玉篇(1541.1)』, 『新編古今事文類聚(1542.1)』, 『朱子大全 I (1543.6)』, 『朱子語類 I (1544.6)』 등 同本 포함 16종 17건으로 약 22.5%를 차지하고 있다.

明宗代는 『南史(1546.5)』, 『御製文集(1546.10)』, 『懷麓堂詩藁(1547.3)』, 『兵政(1548.7)』, 『中庸集略(1548.12)』, 『桂洲奏議(1549.10)』, 『讀杜詩愚得(1549.10)』, 『異端辨正(1551.6)』, 『文章一貫(1551.10)』, 『藝文類聚(1552.3)』, 『國朝五禮儀(1552.4)』, 『大明會典(1552.6)』, 『春秋胡氏傳集解(1553.3)』, 『天原發微(1553.6)』, 『選詩(1553.10)』, 『文章辨體(1555.5)』, 『唐詩始音輯註(1556.4)』, 『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1556.10)』, 『十一家註孫子 I (1558.7)』, 『歷代兵要(1558.7)』, 『兵將說(1558.7)』, 『吳子直解 I (1558.7)』, 『文獻通考(1558.11)』, 『醫說(1560.8)』, 『通典(1560.9)』, 『大明一統志(1564.6)』, 『詳說古文眞寶大全前集(1567.6)』 등 同本 포함 27종 33건으로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宣祖代는 『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1569.3)』, 『儀禮經傳通解(1570.5)』, 『唐百家詩(1570.9)』, 『四書重訂章圖輯釋通義大全(1570.10)』, 『心經附註(1573.5)』, 『內訓(1573.12)』, 『朱子增損呂氏鄉約(1574.2)』, 『朱子語類 II (1575.5)』, 『朱子大全 II (1575.7)』, 『國朝儒先錄(1575.10)』,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1577.2)』, 『唐太宗李衛公問對直解(1577.10)』, 『司馬法集解(1577.10)』, 『三略直解(1577.10)』, 『吳子直解 II (1577.10)』, 『尉繚子直解(1577.10)』, 『六韜直解(1577.10)』, 『十一家註孫子 II (1577.10)』, 『晦齋先生集(1578.7)』, 『新刊補註銅人臉穴鍼灸圖經(1578.9)』, 『二倫行實圖(1579.11)』, 『箋註靖節先生集(1583.9)』, 『論語集註(1585.11)』, 『書傳大全(1587.2)』, 『詩傳大全(1587.2)』, 『孝經大義(1590.9)』 등 同本 포함 26종 39건으로 약 36.6%를 차지하고 있다.

燕山君代는 내사본의 전존량이 매우 희소 하지만 내사기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인본이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해당된다. 특히 『大同宣府軍門練武圖法』은 내사본의 2대 요소인 내사기와

내사인이 모두 확인되는 세계 最古本이다.¹⁷⁾ 中宗代의 내사본은 16종 17건으로 燕山君代에 비해 수량이 크게 증가되고, 明宗代도 마찬가지로 27종 33건으로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한 모습이다. 宣祖代 내사본은 26종 39건으로 明宗代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宣祖代에 발발한 임진왜란 때문에 10년 이상 인쇄기능이 마비된 점을 감안한다면 시기가 후대로 갈수록 전존량이 크게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일본 전존 16세기 조선의 내사본은 모두 71종 91건으로, 폭정의 燕山君代와 在位 기간이 짧은 仁宗代를 제외하면 4王代에 걸쳐 점진적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 主題別 分析

일본 전존 16세기 조선 내사본의 주제는 經, 史, 子, 集의 대분류 안에 26개 항목으로 세분 된다. 대분류는 경부 11종(13%), 사부 17종(24%), 자부 26종(36%), 집부 17종(24%)으로 자부의 전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각 주제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主題別 分析

서명 옆 ()의 숫자는 件數

區分	細區分	書名	數量 (種)	比率 (%)
經部	易類	周易傳義大全	1	1.4
	書類	書傳大全	1	1.4
	詩類	詩傳大全	1	1.4
	禮類	儀禮經傳通解	1	1.4
	春秋類	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2)/春秋胡氏傳集解	2	2.8
	孝經類	孝經大義	1	1.4
	四書類	中庸集畧/四書重訂章圖輯釋通義大全/論語集註(2)	3	4.2
小學類	韻會玉篇	1	1.4	
史部	正史類	前漢書/南史	2	2.8
	編年類	歷代通鑑纂要	1	1.4
	抄史類	十七史詳節	1	1.4
	別史類	歷代兵要	1	1.4
	傳記類	國朝儒先錄	1	1.4
	奏議類	少保于公奏議/桂洲奏議	2	2.8
	職官類	治平要覽	1	1.4
	政書類	國朝五禮儀(2)/大明會典/文獻通考/通典/大明一統志	5	7.0
	金石類	歷代君臣圖像	1	1.4
	地理類	東國輿地勝覽/海東諸國記	2	2.8

17) 실제로는 1442년(世宗24)에 인출된 갑인자본 『春秋經傳集解』를 最古本으로 들 수 있겠으나 내사기의 내용 중 시기를 포함한 일부 내용이 빠져있다. 이 인본은 梁誠之(1415-1482)가 受賜한 것으로 현재 대영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차후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내사기와 내사인을 갖춘 현전 최고의 내사본으로 정리될 것이다.

子部	儒家類	朱子語類 I/異端辨正(4), 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心經附註/內訓/朱子增損呂氏鄉約/朱子語類 II /二倫行實圖	8	11.3
	兵家類	大同宣府軍門練武圖法/兵政/十一家註孫子 I/兵將說/吳子直解 I/唐 太宗李衛公問對直解(3)/司馬法集解(3)/三略直解(2)/十一家註孫子 II(2)/吳子直解 II(2)/尉繚子直解(4)/六韜直解(3)	12	16.9
	醫家類	醫說/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新刊補註銅人驗穴鍼灸圖經	3	4.2
	術數類	天原發微	1	1.4
	類書類	新編古今事文類聚/藝文類聚	2	2.8
集部	總集類	迂齋先生標註崇古文訣/選詩/文章辨體(2)/唐詩始音輯註/西山先生眞 文忠公文章正宗/詳說古文眞寶大全前集/唐百家詩	7	9.9
	別集類	山谷內集詩註/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朱子大全 I/御製 文集(2)/懷麓堂詩彙/讀杜詩愚得/朱子大全 II/晦齋先生集/箋註靖節 先生集	9	12.7
	詩文評類	文章一貫	1	1.4
合計			71	10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가류 12종 24건(16.9%)의 비율이 가장 높고, 별집류 9종 10건(12.7%), 유가류 8종 11건(11.3%), 총집류 7종 8건(9.9%), 정서류 5종 6건(7%)의 순서로 나타난다. 나머지 항목의 서적은 1~3종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병가류, 별집류, 유가류, 총집류, 정서류 등 5항목의 주제가 전체 약 60%의 비율을 차지한다.

자부의 비율이 높은 원인은 16세기 국내의 정세 상 병서에 큰 관심을 보여 거듭 重刊한 사실도 한몫 했지만, 그에 앞서 『武經七書』에 포함되는 일곱 가지 병서의 일괄 간행과 반포에 따른 실물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VI. 結 論

현재 일본 전존 16세기 조선의 내사본 대부분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게 약탈당한 서적들로, 국내에는 없거나 유일본이 많은데다 대부분 완질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활용성도 매우 높은 것들이다. 이를 여러 각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내사본의 소장처별 현황은 봉좌문고가 21건(23%)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소장하고 있다. 이어 서릉부와 존경각문고가 각각 13건(14%)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91건의 내사본 가운데 동일 인물 포함 모두 64명의 受賜者가 나타나고 있는데 廣島市立圖書館 淺野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盧植의 내사본이 7건으로 가장 많고, 書陵部 소장 金瓚의 내사본이 6건으로 두 번째다. 이 외에 鄭大年 4건, 洪彥弼, 任輔臣, 李陽元이 각각 3건이며 權應挺, 金半千, 南應龍, 安璋, 金適, 朴忠

元, 宋寅의 내사본이 각각 2건으로 나타난다. 나머지는 受賜者 51명의 내사본이 각 1건씩 전존하고 있다.

둘째, 내사본의 판종은 금속활자본이 65종 85건(92%)으로 목판본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금속활자본 중에서도 을해자본이 27종 43건(38%)으로 가장 많이 내사되었고 초주갑인자본과 갑진자본은 각각 13종 15건(18%), 13종 14건(18%)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일본에 전존하는 16세기 조선의 내사본 수량은 총 71종 91건으로 파악되었으며 燕山君代 2종 2건(2.8%), 中宗代 16종 17건(22.5%), 明宗代 27종 32건(38%), 宣祖代 26종 41건(36.6%)으로 후대로 오면서 種數와 件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내사본의 주제는 대분류에서는 자부가 26종 41건(37%)으로 가장 높았고, 소분류에서는 26개 항목 중 자부의 병가류가 12종 24건(17%)으로 가장 많이 전존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별집류 9종 10건(13%) 순이다.

일본 전존 16세기 조선의 내사본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소장처별로는 봉좌문고, 受賜者별로는 盧植, 판종별로는 을해자본, 시기별로는 명종대와 선조대의 내사본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고 주제별로는 병서가 가장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문헌

- 姜順愛. 奎章閣의 圖書編纂 刊印 및 流通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89.
- 國立文化財研究所.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 대전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集部. 京都 :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 藤本幸夫. “日本現存內賜本について.” 21세기 국어학의 과제(2000. 9), pp.173-205.
- 白麟. “內賜記와 宣賜之記에 對하여.” 國會圖書館報, 제6권, 제8호(1969. 10), pp.8-19.
- 沈喆俊. 內賜本版式·古文書套式 研究. 서울 : 一志社, 1990.
- 沈喆俊. 日本訪書志. 城南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 安秉禧. “內賜本の 한 研究.” 藏書閣, 제8집(2002. 12), pp.5-30.
- 尹炳泰. “內賜記와 內賜印記.” 문헌정보학연구지, 제8호(1983. 2), pp.25-43.
- 尹炳泰. “內賜記 이야기.” 古書, 제4호(1997. 4), pp.7-20.
- 李殷澤. “菱花板製作 및 內賜記研究.” 도서관학논집, 제2권(1975. 12), pp.79-97.
- 李在俊. 藏書閣 所藏 內賜本 研究. 碩士學位論文,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09.
- 李在俊·宋日基. “藏書閣 所藏 內賜本の 書誌的 研究.” 書誌學報, 제33호(2009. 6),

pp.153-184.

李在俊·宋日基. “朝鮮時代 內賜本の 內賜記 記述 形式考.” 書誌學研究, 제44집(2009. 12), pp.85-118.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 민음사, 1997.

千惠鳳.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 지식산업사, 2003.

한국서지학회.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録-河合文庫所藏韓國本. 서울 : 한국서지학회, 1993.

한국해외전적조사연구회.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録-日本 宮內廳 書陵部 韓國本 目録. 서울 : 한국해외전적조사연구회, 2001.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n, Byeonghui. “A Study on Naesabon.” *Jangseogak*, Vol.8(2002. 12), pp.5-30.

Baek, Lin. “The Study on Naesagi and Seonsazigi.” *The Journal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Vol.6(1969. 10), pp.8-19.

Cheon, Hyeobong. *Korea Bibliography*. Seoul : Mineum Publications Co., 1997.

Cheon, Hyeobong. *Korean Old Book Possessed at Hosa's Collection(蓬左文庫) in Japan*. Seoul : Jisik-Sanup Publications Co., 2003.

Fujimoto, Yukio. *Nihon Genzon Chōsenbon kenkyū-Shūbu*. Kyoto : Kyōto Daigaku Gakujutsu Shuppankai, 2006.

Fujimoto, Yukio. “Nihon genzon Naesabon.” 21-segi kugōhak ūi kwaje(2000. 9), pp.173-205.

Kang, Sunae. “(The)study of the compilation,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books by the Kyuchangkak.” Doctoral Thesis, Sungkyunkwan Univ., 1989.

Korea Bibliography Academy. *The Catalog of Korean Rare Books in the Overseas*. Seoul : Korea Bibliography Academy, 1993.

Korean bibliographical materials Research Society in overseas. *The Catalog of Korean Rare Books in the Overseas*. Seoul : Korean bibliographical materials Research Society in overseas, 2001.

Lee, Euntaek. “A Study of Nungwhapan and Nesaki” *Journal of Library Science Society*, Vol.2(1975. 12), pp.79-97.

Lee, Jaejun. “A Study on Naesabon Preserved in Jangseogak.” *Master Thesis*, Chungang Univ., 2009.

- Lee, Jaejun and Song, Ilgie. "The Bibliographic Study on Naesabon Preserved in Jangseogak." *Journal of the bibliography*, Vol.33(2009. 6), pp.153-184.
- Lee, Jaejun and Song, Ilgie. "A Study on the Naesagi Description Form."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Vol.44(2009. 12), pp.85-118.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atage. The Catalogue of Korean Rare Books in Overseas. Daejeon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atage, 2006.
- Sim, Woojun. *The Study on Form of Naesagi and Symbol of Antique Documents*. Seoul : Ilzisa, 1990.
- Sim, Woojun. The Bibliography of Japan. Seongnam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88.
- Yoon, Byeongtae. "The Naesagi and Naesaingi."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8 (1983. 2), pp.25-43.
- Yoon, Byeongtae. "A Story of Naesagi" *Goseo*, Vol.4(1997. 4), pp.7-20.

附錄：日本 傳存 16世紀 朝鮮의 內賜本 目錄

No.	書名	板種	時期	受賜者	
1	大同宣府軍門練武圖法	甲辰字	1501.03	理山郡守	李之芳
2	東國輿地勝覽	癸丑字	1502.02	司成	權鈞
3	海東諸國記	甲寅字	1512.03	校理	洪彥弼
4	治平要覽	甲辰字	1516.11	左贊成	金詮
5	少保于公奏議	乙亥字	1520.08	典翰	任樞
6	周易傳義大全	甲寅字	1520.10	兵曹判書	張順孫
7	歷代通鑑纂要	甲寅字	1521.08	左贊成	李繼孟
8	前漢書	甲寅字	1525.05	左副承旨	南世準
9	山谷內集詩註	甲寅字	1526.02	麗川尉	閔子芳
10	歷代君臣圖像	拓本	1526.05	正言	黃憲
11	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	甲寅字	1533.09	說書	權應挺
12	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	甲寅字	1533.09	正言	鄭希廉
13	十七史詳節	甲辰字	1535.06	吏曹參判	許洽
14	迂齋先生標註崇古文訣	丙子字	1535.09	益陽君	懷
15	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	甲寅字	1537.02	礪城尉	宋寅
16	韻會玉篇	乙亥字	1541.01	副校理	金半千
17	新編古今事文類聚	甲辰字	1542.01	左議政	洪彥弼
18	朱子大全 I	乙亥字	1543.06	同副承旨	權應挺
19	朱子語類 I	丙子字	1544.06	右司書	盧守慎
20	南史	甲寅字	1546.05	大司憲	洪暹
21	御製文集	甲寅字	1546.10	完山君	壽誠
22	御製文集	甲寅字	1546.10	弘文館博士	任輔臣
23	懷麓堂詩藁	乙亥字	1547.03	領中樞府事	洪彥弼
24	兵政	乙亥字	1548.07	領中樞府事	李光軾
25	中庸集畧	木板	1548.12	漢城府右尹	羅世繼
26	桂洲奏議	甲辰字	1549.10	前吏曹佐郎	任輔臣
27	讀杜詩愚得	乙亥字	1549.10	都承旨	鄭大年
28	異端辨正	乙亥字	1551.06	行副護軍	林億齡
29	異端辨正	乙亥字	1551.06	驪州牧使	安瑋
30	異端辨正	乙亥字	1551.06	持平	鄭宗榮
31	異端辨正	乙亥字	1551.06	漆原縣監	辛士衡
32	文章一貫	乙亥字	1551.10	戶曹參議	林鵬
33	藝文類聚	甲辰字	1552.03	前右副承旨	朴忠元
34	國朝五禮儀	乙亥字	1552.04	行上護軍	宋孟環
35	國朝五禮儀	乙亥字	1552.04	司禦寺正	金半千
36	大明會典	丙子字	1552.06	前工曹參議	南應龍
37	春秋胡氏傳集解	甲寅字	1553.03	前工曹參議	南應龍
38	天原發微	乙亥字	1553.06	弘文館正字	朴啓賢
39	選詩	甲寅字	1553.10	楊州牧使	安方慶
40	文章辨體	甲辰字	1555.05	戶曹判書	任虎臣
41	文章辨體	甲辰字	1555.05	承文院判校	任輔臣
42	唐詩始音輯註(唐音)	乙亥字	1556.04	同副承旨	安瑋
43	西山先生真文忠公文章正宗	甲辰字	1556.10	典籍	洪天民
44	十一家註孫子 I	丙子字	1558.07	金提郡守	金通
45	歷代兵要	丙子字	1558.07	輔德	李彥忠

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4호)

No.	書名	板種	時期	受賜者	
46	兵將說	乙亥字	1558.07	金提郡守	金適
47	吳子直解 I	乙亥字	1558.07	平安道觀察使	丁應斗
48	文獻通考	甲辰字	1558.11	弘文館直提學	尹毅中
49	醫說	甲辰字	1560.08	左副承旨	柳昌門
50	通典	乙亥字	1560.09	獻納	李翎杜
51	大明一統志	乙亥字	1564.06	兵曹參判	朴忠元
52	詳說古文眞寶大全前集	木板	1567.06	行副護軍	李光軫
53	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	甲寅字	1569.03	兵曹判書	鄭大年
54	儀禮經傳通解	甲寅字	1570.05	忠清道觀察使	朴素立
55	唐百家詩	甲辰字	1570.09	平安道觀察使	成世章
56	四書重訂章圖輯釋通義大全	甲辰字	1570.10	永川君	眉壽
57	心經附註	木板	1573.05	礪城君	宋寅
58	內訓	乙亥字	1573.12	典籍	沈忠謙
59	朱子增損呂氏鄉約	乙亥字	1574.02	司藝	安容
60	朱子語類 II	丙子字	1575.05	行知中樞府事	鄭大年
61	朱子大全 II	乙亥字	1575.07	工曹參判	柳希春
62	國朝儒先錄	乙亥字	1575.10	同知中樞府事	盧禎
63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乙亥字	1577.02	大司諫	崔[웅]
64	唐太宗李衛公問對直解	乙亥字	1577.10	掌令	盧植
65	唐太宗李衛公問對直解	乙亥字	1577.10	持平	金瓚
66	唐太宗李衛公問對直解	乙亥字	1577.10	戶曹判書	尹鉉
67	司馬法集解	乙亥字	1577.10	掌令	盧植
68	司馬法集解	乙亥字	1577.10	持平	金瓚
69	司馬法集解	乙亥字	1577.10	吏曹參判	李陽元
70	三略直解	乙亥字	1577.10	掌令	盧植
71	三略直解	乙亥字	1577.10	持平	金瓚
72	十一家註孫子 II	乙亥字	1577.10	掌令	盧植
73	十一家註孫子 II	乙亥字	1577.10	京畿觀察使	尹根壽
74	吳子直解 II	乙亥字	1577.10	掌令	盧植
75	吳子直解 II	乙亥字	1577.10	持平	金瓚
76	尉繚子直解	乙亥字	1577.10	掌令	盧植
77	尉繚子直解	乙亥字	1577.10	正言	金晬
78	尉繚子直解	乙亥字	1577.10	持平	金瓚
79	尉繚子直解	乙亥字	1577.10	吏曹參判	李陽元
80	六韜直解	乙亥字	1577.10	掌令	盧植
81	六韜直解	乙亥字	1577.10	持平	金瓚
82	六韜直解	乙亥字	1577.10	吏曹參判	李陽元
83	晦齋先生集	木板	1578.07	行吏曹判書	鄭大年
84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甲辰字	1578.09	內醫院僉正	許浚
85	二倫行實圖	木板	1579.11	南原判官	丁龜壽
86	箋註靖節先生集	庚辰字	1583.09	刑曹佐郎	沈友正
87	論語集註	庚辰字	1585.11	行同知中樞府事	黃琳
88	論語集註	庚辰字	1585.11	文城君	健
89	書傳大全	庚辰字	1587.02	行上護軍	尹毅中
90	詩傳大全	庚辰字	1587.02	行同知中樞府事	尹卓然
91	孝經大義	經書字	1590.09	掌令	張雲翼